

메이산 품종 수돼지

중공의

Pig international 1984년

중공의 돼지고기 생산은 육류가운데 주종인데 중공인들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며 특히 남부지방에서 많이 소비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매일 먹겠다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돼지고기생산은 전체 육류생산량중 단연 최고를 점유하고 있다.

중공은 1979년에 1,127만톤의 육류를 생산했는데 이중 돼지고기가 94.3%를 차지했고 양고기는 3.54%, 쇠고기는 2.16%를 점유한 바있다.

수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중공의 돼지두수는 급속히 증가해왔다.

1949년과 1979년 사이에 5,775만두에서 3억 1천 9백 7십만 5천두로 증가하여 연평균 15.12%의 신장율을 보였다.

오늘날 중공은 세계 돼지두수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중공의 돼지사육형태는 크게 3가지 기본 형태로 나뉘어진다.

첫째 시골, 교외, 소읍 지역에서 볼수 있는 가족 경영 형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국영(省)농장으로서 인민공사가 소유하는 100두이하부터 10,000두 이상 규모의 농장이 있다.

세째로 최근에는 대규모 현대양돈장이 발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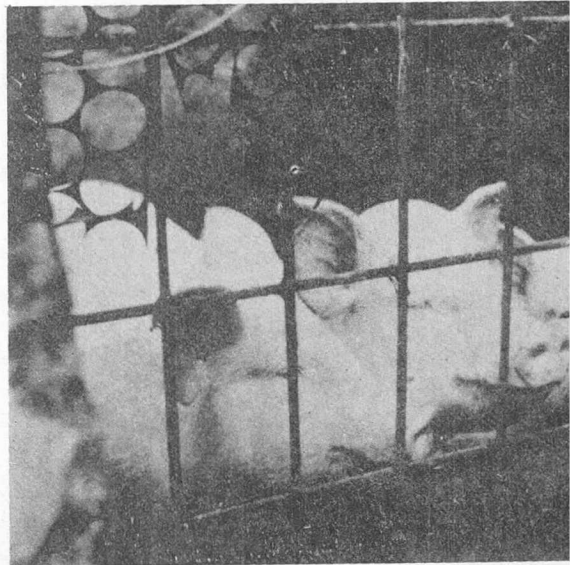
가족농장과 인민공사농장은 그들 돼지의 반을 쉼에 팔며 나머지 반은 가정에서 소비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省농장과 省대규모 양돈장은 쉼에 비돈육을 공급하는데, 省은 돼지를 수집하여 도축장에 팔고 있다.

돼지고기와 부산물은 상업과에 의해 시와 읍 주민들에게 팔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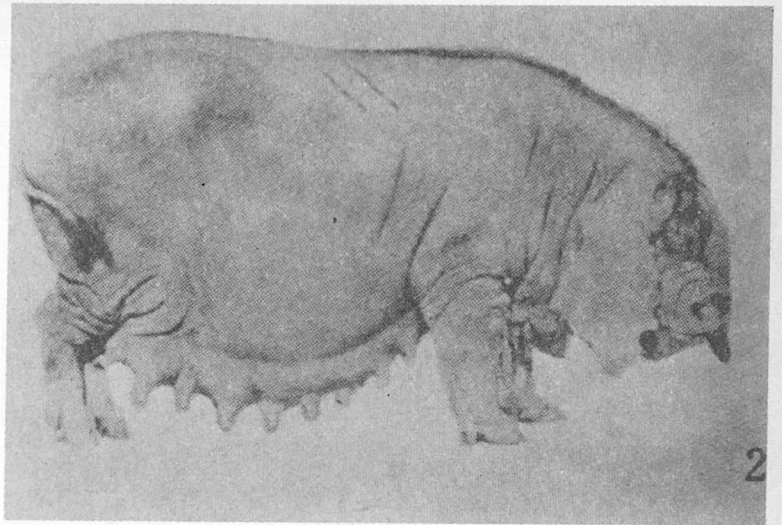
현재 가족경영형태가 주종으로서 전체 돼지두수의 80%를 차지한다.

뒷뜰이나 집에서 기르는 양돈이 중공 전체 돼지



양돈사정

일 형 대리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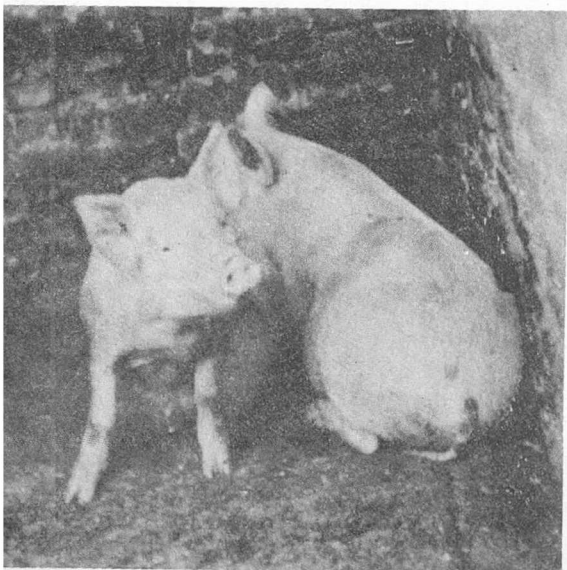
다산성의 메이산 품종 암돼지

중공은 거대한 농업국가로 시골지역에 1억 7천만 가구가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보통 가구당 1~3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이중 전업 농가는 20~50두의 돼지를 기른다.

돼지는 가옥 안팎의 돼지막이나 뒤뜰에서 길러지며, 부엌찌꺼기, 들에서 수집한 야채, 그리고 확실한 양은 모르지만 옥수수, 밀, 쌀 및 쌀겨 같은 곡류를 급여한다.

이런 상태이기때문에 돼지성장율이 낮으며 따라서 소비량은 높아 생산성이 낮다.

을 차지하고 있다.



1950년부터 70년까지 비육돈가운데 상품화율(매년 도축되는 비율)은 50%이며 1인당 평균 소비량은 5kg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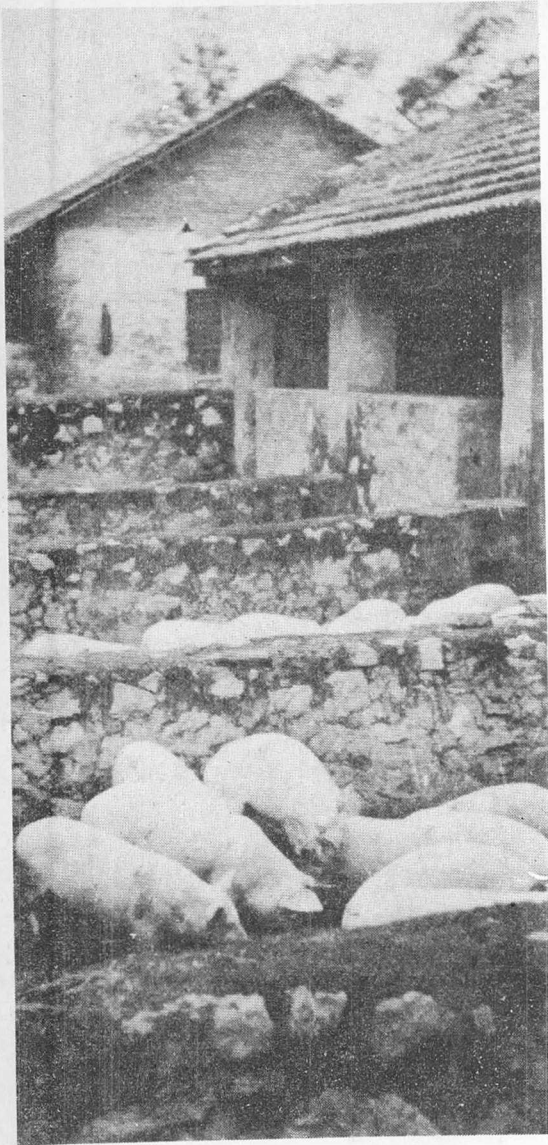
인민공사와 국영농장 그리고 국영 대양돈장에서 생산되는 돼지두수는 전체 돼지의 20%인데 1970년대 후반기이후부터 집약적 양돈이 증가해 온 경향이다. 그당시 정부당국에서 상업 양돈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최 근 일년에 10,000~20,000두의 비육돈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양돈장이 베이징 하얼빈 신양 안산 톈진 타이안 후난 춘산 광쑤우 쉐안지역에 건설되어 왔다.

이와더불어 중공정부당국은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수단을 강구해오고 있다.

예를들면 (1)양돈사료, 돈사,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현대적 방법을 사용하여 산업을 장려하고 (2)재래종과 수입 외국종 돼지의 선발과 육종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3)생산성증가를 위한 잡종교배의 활용 (4)중공양돈산업에 외국의 투자 장려등이 있다.

중공 양돈산업의 현대화는 지금 시작되었으나 이미 일대혁신을 가져온 부문도 있다. 1978년에 중공 돼지 두수가 최초로 3억두를 돌파했고 80kg이상의 비육 출하돈의 비율이 55.2%였다.



성 농장의 규모는 100두부터 10,000두 까지 다양하다.

생산자에 의해 출하되는 비육돈은 그렇다치고 중공정부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돼지고기 1천만 톤(1억 9백 50만두)을 처분했다.

1979년에 돼지두수는 3억 1천 9백 7십만두로 이중 상품화율은 62.3%로 78년보다 7.1% 증가한 추세이며, 정부는 그해에 1억 3천만두의 판매돈을 보유하고 있었다.

돼지 1두당 평균 생체중이 78년보다 5.95kg 높아져 돼지고기 생산량은 1천 6십 2만 4천톤에 달했고, 1인당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10.35kg이었다.

1980년 돼지사육두수는 3억 5백 4십 3만 1천두로 79년보다 4.5%감소했으나, 비육돈이 1억 9천 8백 6십 7천두로 5.8%증가했으며, 상품화 비율이 65%로 79년보다 2.7% 늘어났으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1천 1백 3십 4만 3천톤으로 79년보다 13.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11.35kg으로 79년보다 1kg이상 증가했다.

빼이징, 상하이, 텐진등지의 양돈산업은 최근에 발달되어 상품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의 상품화율은 62.3%였으나 빼이징, 상하이, 텐진의 그것은 각각 80.4%, 114.2%, 77.1%를 보였다.

중공이 세계에서 가장 큰 양돈생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전은 하고 있지만, 1인당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이 세계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인데, 국내 수요의 잠재력을 보아 생산량 증후타입의 하나인 엘화란 품종의 성성속은 2~3개월에 15.2kg에 도달하고 1복당 평균 산자수는 초산시 15.30두이고 출생시 생존산자수는 13.59두이며 이유시 생존수는 11.54두이다.

이 돼지들은 여러 환경과 조건에 잘 적응한다. 또 저질 사료와 고섬유 사료에도 어느정도 내성이 강해 그들의 고기맛은 일품이다.

그러나 체구가 작고 일당중체량이 낮으며 사료효율과 정육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정육율은 약 40%이다. 다행히도 도시인의 20%와 시골주민의 40%가 지방을 좋아하나, 그들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돼지 비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돼지는 수출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영국, 소련, 미국등 외국으로 부터 돼지를 도입해오고 있다.

잡종교배를 사용해서 잡종강세효과를 얻고 있다. 예를들면 상하이 흰 돼지와 듀록을 교잡해서 지육중 정육비율이 50%에서 61.05%로 증가했다. 또 타이후 돼지와 랜드레이스를 교잡해서

도체 정육율이 35.23%에서 54.45%로 개선됐다.

오늘날 중국의 상업돈 생산은 주로 잡종강세돈의 후손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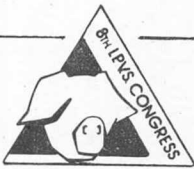
중공 양돈산업은 현대화 되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그들 가운데 불확실한 사료생산과 양돈기계 설비의 부족, 질병의 비과학적인 치료와 관계등이 있다. 이들이 중공의 돼지 생산성의 저해 요소이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중공은 미국의 생산량을

따라가려면 현재보다 3배가 많은 돼지가 필요하다.

중공은 유전력과 사료 자원이 풍부하기때문에 미래는 밝다.

중공이 외국투자를 장려해서 육종, 사양, 위생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경영관리를 적용하여 현재의 대양돈장건설과 같은 발전을 계속한다면 상업돈의 생산은 현재의 발전속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피그 인터내셔널 1984. 7월호, 15~17쪽, 번역 이일형 대리)◇



제 8 차 국제 돼지 수의학회 벨기에에서 개최

국제 돼지 수의 학회가 주최한 학술회의가 격년으로 개최되어 왔는데 금년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벨기에 겐트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상기 학술대회는 1970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후 2년씩 돌아가면서 서독, 프랑스, 미국, 유고슬라비아, 덴마크 그리고 80년엔 멕시코에서 개최된 바 있었다.

매 모임마다 세계의 학회회원과 수의사, 연구가들이 돼지 위생 문제에 있어 최선의 발전된 견해와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 8차 학술회의에서는 40개국에서 3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금년의 국제 돼지 수의 학회(IPVS) 회장인 겐트주립대학 수의학과 모어라이스 펜셀트교수는 1984년 모임은 임상분야의 돼지 전문 수의사들의 모임을 마련하는등 색다른 스케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00여명이 등록한 이번 모임은 돼지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위생관리 문제가 다루어졌다고 밝혔다.

가성광견병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이 모임에서도 이 질병에 대해서만 5번의 분과회의를 가졌으며 기타 위축성비염, 헤모피루스 폐염, 대

장균등에 대해서도 1~2회의 분과회의를 가졌다.

특히 번식능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임신진단과 분만유도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IPVS참가자들은 회의가 끝난후 벨기에 양돈농장을 방문했는데 벨기에에는 연간 8백만두의 돼지가 도살되어 70만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해낸다.

1983년 12월 센서에 의하면 돼지사육두수는 5백 18만두로 이중 어미돼지는 6십 3만 2천두를 차지하고 있다.

돼지두수가 1970년의 3백 8십만두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농가호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969년 82,245호에서 1982년 37,600호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69년의 33.8두에서 81년엔 136.1두로 증가했다.

번식농장수도 74년의 43,266호에서 81년에 25,954호로 줄어 총호수의 65.6%, 69.1%를 각각 차지했다.

벨기에 양돈산업의 특징중의 하나는 비록 양돈농장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어미돼지를 100두이상 갖고 있는 농장이 현저히 증가한다는